

##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디자인>

김상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 Alex Coles

“1960년대 초 아키그램의 ‘플러그인시티’ 프로젝트도 이 장에 실렸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전위 그룹 아키즘이나 영국 건축가 세드리 프라이스를 위시해 수많은 유럽 아방가르드들이 현재의 도시 조건에 대한 급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였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적인 협업 속에서 이뤄지는 유토피아를 마음 속에 품었다.”

“단순히 디자인미술에 대한 담론의 견지에서 보자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미술과 디자인, 건축 사이의 접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다.”

### Dan Graham, 디자이너는 예술가인가?(Art as Design/Design as Art), 1986

#### 1. 울덴버그

“울덴버그는 <전통적인 산업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 제작된 사물>을 추상화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가 달성한 제작된 외관은 단지 객관적인 복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대량 소비사회에서 개인들의 공동 주관적 취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산업이 사용했던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인격화된다.”

#### 6. 체임벌린

“청정한 새하얀 표면이 바삭 말라 누렇게 변색되어 결국 부서진다는 점에서, 이 의자들은 일시적이었다. 그들은 부드러운 조각품으로 읽히거나 의자로 사용될 수 있었다. (...) 체임벌린은 발포 고무를 노출시켜 자유로운 형태의 의자와 소파를 만들었는데, 이는 고상한 유행을 따르는 현대적인 가구들을 시사한다.”

“체임벌린의 소파는 기능주의자들의 의자에서 걸치장이 덮고 있는 물질적 기반을 노출시키기 위해 분해되는 발포 고무 사용함으로써 기능주의 의자의 인위적인 양식화를 벗겨낸다. (...) 아무리 기능적으로 디자인된 의자들이라 해도 마모되도록 디자인되는데, 이러한 내재된 노화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일부를 이룬다.”

### Joe Scanlan, 자, 명품을 드세요(Please, Eat the Daisies), 2001

“디자인 미술이 얼마나 흥미로울 수 있는지는 그것이 드러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소비되기 위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모든 기능적 사물들이 기능이 아닌, 그 기능의 사회적 가치로 대변되는 의미를 축적하면서 기호의 세계로 납작해지는 곳에 바로 통화가치가 존재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그 의미는 사용이 아닌 가격이다.”

### Hal Foster, 디자인과 범죄(Design and Crime), 2002

“삶과 예술을 다시 연결하려는 그 진부한 프로젝트는 아르누보, 바우하우스, 기타 많은 운동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를 받으며, 마침내 달성되고야 말았다. 아방가르드들의 자유주의적 야심이 아닌 문화산업이라는 스펙터클한 지령에 따라 이뤄지긴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런 왜곡된 형태의 영합의 주인공이 바로 디자인이다.”

“고전적이면서 선두적인 철학과 역사를 보여주는 일련의 성공적인 출판물과 함께 그는 소위 브루스 마우 디자인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라이프 스타일>이 조망하는 세상은 다른 어떤 것, 즉 <성찰적 삶(examined life)>을 <디자인된 삶> 속으로 집어 넣을 것을 제안한다."

"동시대 디자인은 예술과 분과의 경계를 다시 허물고, 관습에 대한 도전을 관례화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자본주의의 위대한 복수의 일환이다. 자율성, 혹은 준자율성조차 어쩌면 환영이거나, 기껏해야 허구일지 모른다."

### **Hal Foster, 콤플렉스(The Art-Architecture Complex), 2011**

"<둥근 모서리, 싹박하고 경쾌한 혼합 컬러와 팝 문화적인 요소들>을 볼 때 아키그램은 이미 <비즈니스의 내부>로 들어와 있었고, 그러한 기획들은 무엇보다도 환상을 반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벤추리 부부는 <포함과 암시>를 결합한 근대 디자인은 형식적 <표현주의>를 우위에 두고 장식적 상징주의를 거부한 데서 기인한 실패라고 생각했다."

"벤추리 부부는 <이러한 풍경에서 건축은 공간 속의 형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팝이 포스트모던으로 부활하면서 아방가르드가 탄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우파를 위한 아방가르드였다. 상업적 이미지들을 발생시킨 건축 환경 속으로 이미지를 되돌려놓음으로써 팝은 포스트모던 안에서 동어반복이 되어버렸다. 이는 기존 문화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바로 그 문화 혹은 그 문화의 배경이었다."

"수퍼스튜디오는 풀러의 지오데식 돔과 아키그램의 부풀린 형태를 통해 강조되었던 팝 디자인의 기술적인 면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그러나 68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과 변화 속에서 이들 역시 반소비주의적인 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쿨하스는 초크, 크롬프턴, 헤론이 직접 가르치던 1960 년 후반에 런던 AA 건축학교를 다닌 까닭에 아키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디드는 점점 더 거대한 부피감을 지닌 표현주의적인 조각을 향해 나아갔다. (...) 실제 하디드는 디지털 기술로 물질적인 제약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함으로써 드로잉에서 건물로 단번에 이동하려고 한다."

### **Anthony Dunne & Fiona Raby, Speculative Everything, 2013**

"프레데릭 제임슨이 익히 언급했듯이, 자본주의의 대안을 생각하느니 세계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아직까지는 대안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딱 들어맞는다. 우린 20 세기의 꿈들이 급격히 사라진 21 세기를 위해 새로운 꿈들을 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디자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디자인 추측은 현실에서 우리의 관계성을 전체적으로 재정의하는 데 촉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린 비평적이고 도발적인 목적으로 추측을 이용했던 급진적 건축과 미술에 오랫동안 영감을 받아왔다. 특히 아키그램, 아키즘, 수퍼스튜디오, 앤티팜, 하우스-러커-코, 월터 피클러와 같은 스튜디오들에 의한 1960 년대와 1970 년대 프로젝트는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왜 디자인에서는 이런 것을 좀처럼 찾기 힘든 것인가?"